

14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(the best gift in the world)

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- 코노스에 등록된 우리나라 각막이식 대기자 수는 현재 3645명. 실제로는 통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막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. 이들에게 누군가의 각막은 빛을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. 각막기증은 단순한 ‘빛’을 되돌려주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.

누군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.

그리고 또 누군가는 밝은 새 삶의 빛을 찾았다. 사랑을 남기고 사랑을 받는 일이다. ‘아름다운 실천’과 ‘감사하는 삶’,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“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”에서 다시 시작된다.

사랑하십시오. 그리고 사랑합니다.

http://www.kbs.co.kr/1tv/sisa/health/view/vod/1585644_941.html

조직기증이란??

뼈, 피부, 심장판막, 혈관 등의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일이다. 조직기증은 장기기증과는 달리 사망 후에 기증이 가능하며 한 명의 기증자에게서 받은 조직으로 많은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.

우리나라 2006년 기준, 인체 조직의 수입률은 94%에 달한다.

그에 반해 미국은 인체 조직 수출에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많은 기증이 이뤄지고 있고, 네덜란드의 경우 매년 600명 정도의 피부기증이 이뤄지고 있으며, 이탈리아는 94년 니콜라스 효과를 겪고 난 후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.

1)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, 장기기증

천사 같은 아기가 세상에서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, 바로 장기기증을 결정한 것이다. 이제 장기를 이식받은 세 명의 또래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숨 쉬며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.

생의 마지막 순간,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가는 사람들.

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.

“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”을 나누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된다.

2)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의 선물, 조직기증!

뼈, 피부, 심장판막, 혈관 등의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조직기증.

조직기증은 장기기증과는 달리 사망 후에 기증이 가능하며 한 명의 기증자에게서

채취한 조직으로 많은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.

특히 화상 환자들의 경우 피부 기증을 통한 동종피부이식 수술을 통해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, 아직까지는 피부조직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. 장기기증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국내에서는 기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다.